

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

문전본풀이

날(日)은 어느 날, 돌(月)은 어느 돌. 올 금년 해(日)는 갈롭긴 이천십팔년 무술년 돌 중에 백록 팔월 스무아흐렛 날 일문전(一門前) 난수생 신평건 본산국 더레 제노립 서.

옛날 옛적 남선고을 남선비가 사옵데다. 여산국에 부인이 사옵데다. 부베(夫婦)간 입장 갈림¹⁾ 헤연 애기사 낳는 게, 아들이 일곱 성제 솟아나난, 가난허고 서난허난 먹을 건 엇어지고, 오동나라 오동고을 물건 시세가 좋덴 허난, 초각 메역²⁾ 시경 강³⁾ 무곡(貿穀)이나 바팡⁴⁾ 오저.

남선빈 초각 메역 전배독선(全船獨船) 시경 보름 불어 가는대로, 풍선 상선 탕 가는 것이 오동 나라 오동 고을 들어가난 노일저데귀일이 풀이,

“어디서 온 영감이 뉘옵니까?”

나는 남선고을 남선비고 초각 메역 시경 오랑 무곡이나 바팡 가젠 오고렌 허난,

“우리 집이 가민 안서랑(內舍廊)도 좋고 밧서랑(外舍廊)도 좋고 내외서랑도 좁네다. 우리 집이 가게마썸.”

헤연 가는 것이, 투전 놀음 허는 디 강, 투전 놀음 허단 보난, 전배독선 시경 간 초각메역 베 차⁵⁾ 오꼴허게 일러부난, 남선비는 갈 디 올 디 엇어지난, 노일저데귀일이 툐 사는 디⁶⁾ 좃양⁷⁾ 간 보난, 거적문에 웨돌처기⁸⁾ 돌안⁹⁾ 굽영 들고 굽영 나는 디¹⁰⁾ 살암구나. 체죽단지¹¹⁾ 옆이 찬 살암구나.

체죽만 썩 먹어가난, 남선비 눈은 안명천지(眼盲天地) 뉘옵데다. 집이선 여산국에 부인님은,

“설운 애기덜아, 느네 아방 감감무례 뉘엿이난, 초신이나 혼 베씩 삼아다 도라.”

아덜 일곱성제가 초신 혼 베씩, 일곱 베 사당¹²⁾ 안내난, 삼아단 안내난, 상동낭 용얼레기¹³⁾ 촘썰¹⁴⁾ 혼제에 묶언 은단평(銀唐瓶)에 서단마게¹⁵⁾ 막아놓고 저 바당 저 성

1) 입장갈림: 혼인.
2) 초각메역: 미역.
3) 시경 강: 싣고 가서.
4) 바팡: 바꿔서.
5) 베 차: 배 채.
6) 사는 디: 사는 곳.
7) 좃양: 쫓아서.
8) 웨돌처기: 외돌쩌귀.
9) 돌안: 달아서.
10) 나는 디: 나는 곳.
11) 체죽단지: 거죽단지.
12) 사당: 사다가.
13)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 머리빗.
14) 촘썰: 명주실.
15) 서단마게: 마개.

창에 간, 남인 가장님 살았건 혼저¹⁶⁾ 읊서. 죽엇건 본메본짱¹⁷⁾ 머리커럭¹⁸⁾ 하나라도 올라옵센 허난,

머리커럭 하나도 아니 올라오고 영 허난, 설운 애기덜 좃안 오란.

“설운 애기덜아, 느네 아방 산 거 닳다. 저 산에 올라 강 올곧고 실곧은 냥¹⁹⁾ 헤여 당 상선이나 짓어도라.²⁰⁾ 중선이나 짓어도라. 하선이나 짓어도라.”

상선 중선 하선은 당장 못 짓으난, 올곧고 실곧은 냥 허여근, 엮어근 테위선 멘들안 풍선 돌안 보름 가는 냥,²¹⁾ 절 가는 냥 가는 것이,

오동 나라 오동 고을 들어가난, 지장밧디 애기씨 선창머리 내리난,

“요새야, 저새야 밥줄이 옥은 새야, 너무 옥은 체²²⁾ 허지 말라. 아이 뭇은 청그물²³⁾ 든다. 남선비 옥은 깬에도 노일저데귀일이 푼 호탕에 들언. 전베독선 다 망허고 눈도 안명천지 뉘여근 체죽단지 옆이 찬 살암젠 요 새 저 새 주어 저 새.”

허난, 여산부인 말을 허뉘,

“애기씨 그 말 혼 곡지 더 골아도라.²⁴⁾ 갑서댕기 끊어주마”.

“나 새 다울리는²⁵⁾ 말 뵈이 아니 골앗우다.”

허난,

“다시 혼 번 골아도라.”

허난,

“요 새야, 저 새야 밥주리 옥은 새야 너미 옥은 체 허지 말라. 아이 뭇은 그물에도 든다. 남선비 옥은 깬에 노일저데귀일이 푼 호탕에 들언 전베독선 다 망허고 눈은 안명천지 뉘엇저. 요 새 저 새 주어 저 새.”

허난,

어디쯤 사느넨? 허난,

“요 제 념영 강 뵈서. 저 제 념영 강 뵈서.”

요 제 념곡 저 제 념고 간 보난, 대추낭 꽃가마귀 집에 거죽문에 웨돌쳐기 돌안 굽영 들고 굽영 나는 디 살암구나. 들어 가명 여산국 부인님.

“주연이나 호꿈 빌립서.”

“나그네도 염치 엇인 나그네우다. 집을 보명 주연을 빌립센 험서.”

“난 디 나명²⁶⁾ 집을 지영²⁷⁾ 납네까? 난디 나명 밥을 지영 납네까?”

계건 요 무똥이라도²⁸⁾ 호꿈²⁹⁾ 빌립센 허난,

16) 혼저: 어서 빨리.

17) 본메본짱: 증거가 될 사물.

18) 머리커럭: 머리카락.

19) 실곧은 냥: 튼튼한 나무.

20) 짓어도라: 만들어 주라.

21) 냥: 대로.

22) 옥은 체: 약은 척.

23) 뭇은 청그물: 뜬 그물.

24) 골아도라: 말해주라.

25) 다울리는: 내쫓는.

26) 난 디 나명: 나간 데 나가면서.

27) 지영: 쳐서.

“결랑 기영 협서.”

무똥을 빌리난,

“솥을³⁰⁾ 호꼼 빌립서.”

솥을 빌리난, 솥뚜껑이 올안 보난³¹⁾ 체죽만 썬 먹어나난, 누녕이³²⁾ 닷말 닷뉘 놀엇 구나. 앞뻗디 놀려들언³³⁾ 삼수세기³⁴⁾ 걷어단, 초불³⁵⁾ 이불³⁶⁾ 제삼불 판찍허게³⁷⁾ 씻어 두언. 대백미 쌀 내여 난 요 밥을 먹읍센 허난, 남선빈 비세골이 울어간다.

“어떻헤연 울미꽈?”

“본말이나 잇우꽈?”

“본말도 들은 말도 엇영 나 살아온 역사나 곧건³⁸⁾ 들읍서. 난 남선고을 남선비고 우리 부인 여산국 부인이고 아들 일곱 성제 난 가난허고 서난허연 먹을 건 엇어지고 초각 메역 시경 왕, 무곡이나 바깥 가젠 허단 투전판에 들엇당, 전베독선 다 망허고 벤 문딱 일러볼고 차비 노소허연 오고 가지도 못허는 신세가 뉘연. 눈도 안명천지가 뉘엿우다.”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나 여산국이 부인이 뉘네다.”

번찍 뜬³⁹⁾ 것이 뜬 봉서가 뉘엿구나. 아이고, 울단도 웃언. 만단정화(萬端情話) 곱 아가난,⁴⁰⁾ 웃어가난 노일저데귀일이 툇 놉이 피, 방에⁴¹⁾ 찝단 치메 귀아지에⁴²⁾ 체⁴³⁾ 혼 쓸박⁴⁴⁾ 짚 오란,

“요 놉아. 저 놉아. 죽일 놉아. 잡을 놉아. 대동강에 목 벨 놉아. 난 놉이 체죽이라 도, 피 방에라도 찝어단, 체죽이라도 베 뽕글랑허게⁴⁵⁾ 처 먹여가민 넘어가는 질칸나 인 빼칸나인 돌아앗언 웃임놀이 험젠.”

허난,

아이고, 그런게 아니라 우리 큰부인 날 좃앙 왓젠 허난,

“아이고, 큰부인인증 알앗이민 나가 무사 경 험네까. 형님아, 남인 가장 돌앙 가불 민 난 어떻험네까. 난 집이 강 물하님이라도 허크메 나도 훈디⁴⁶⁾ 돌랑⁴⁷⁾ 가쿠다.”

28) 무똥이라도: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이라도.

29) 호꼼: 조금.

30) 솥을: 솥을.

31) 올안 보난: 열어 보니.

32) 누녕이: 누룽지.

33) 놀려들언: 달려가서.

34) 삼수세기: 한삼덩굴.

35) 초불: 한번.

36) 이불: 두 번.

37) 판찍허게: 깨끗하게.

38) 곧건: 말하건.

39) 번찍 뜬: 반작 뜬.

40) 곱 아가난: 말해가니.

41) 방에: 방아.

42) 치메 귀아지에: 치마 모서리에.

43) 체: 겨.

44) 혼 쓸박: 한 쓸박세기.

45) 뽕글랑허게: 배가 튀어나오게.

46) 훈디: 같이.

“결랑 기영 허라.”

“성님아, 더운디 오라나시난 읍서 목욕이나 가게.”

“결랑 기영 허라.”

주천강(酒泉江) 연훼못(蓮花池디 몸목욕 가난, 옷을 우알로⁴⁸⁾ 헤딱허게 다 벗언 물을 자락자락 짓데기단⁴⁹⁾ 노일저데귀일이 툐이 허는 말,

“영 험서. 성님,⁵⁰⁾ 등 밀어 주쿠다.”

“아이고, 느 부떠⁵¹⁾ 밀어주마.”

“아이고, 성님아. 우이로 내리는 물 발등드레 집네다. 성님 부떠 밀어 주쿠다.”

계결랑 기영 허렌 허영 등을 내미난 혼번 미는 체 두 번 미는 체 세 번 미는 체 허단 ,과락허게 주천강 연훼못더레 밀려부난, 쉬운대자 방패머리 허울허울 올라오젠 허민 밀려볼고, 올라오젠 허민 밀려볼고 쉬운대자 방패머리 허울허울 죽엇구나.

큰어명이 입영 간 옷 조근조근 좇어 입언 남선비신디 완,

“그년, 저년. 노일저데귀일이톨 행실이 귀썸허연 죽여될 오랏우다.”

“그년 잘 죽여될 오랏저. 그년 때문에 난 눈은 안명천지 뉘고 전베독선 다 망헤시난 우리 혼저 집이 가볼게.”

“결랑 기영 험서.”

배 탄, 배꼭지 돌령 오는 것이 큰아덜은 아바님이 오시는다. 어머니가 오시는다. 큰 아들 멩건⁵²⁾ 벗언 두리⁵³⁾ 논다. 두 번째 아들 두루막 벗언 두리 논다. 세 번째 아들 바지 벗언 두리 논다. 네 번째 아들 저고리 벗언 두리를 논다. 다섯 번째 아들 행경 벗어 두리 논다. 육섯 번째 아들 보선⁵⁴⁾ 벗어 두리 논다. 일곱 번째 아들 칼선두리 노난,

“아이고, 설운 나 동싱아. 너느 어찌하여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 오는디 칼선두리⁵⁵⁾ 노느냐?”

“아바지는 우리 아버지가 뉘여도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우다. 나 허는 양만⁵⁶⁾ 험서.”

“기여 경 허라.”

“아바지랑 조름에⁵⁷⁾ 사고 어머니랑 앞 삽서. 우리 즈식은⁵⁸⁾ 메조름에 삽네다.”

생전 뎡겨나지 아니 헌 질이난 이 골목 주악 저 골목 주악.

“아이고, 멀미끼가 난 집을 못 좇앙 가키여. 혼저 집을 좇앙 글라.”

47) 돌랑: 따라.

48) 우알로: 위아래로.

49) 짓데기단: 지치다가.

50) 성님: 형님.

51) 느 부떠: 너 먼저.

52) 멩건: 망건.

53) 두리: 다리.

54) 보선: 버선.

55) 칼선두리: 칼날이 위로 향하게 세워진 다리.

56) 허는 양만: 하는 대로만.

57) 조름에: 꿈무니에.

58) 즈식은: 자식은.

집 좃앙 오난, 밥을 험셴 허난, 아버지 앞이 가는 상은 아덜 앞더레 가 간다. 아덜 앞이 가는 상은 아버지 앞더레 가 간다. 선후도착(先後倒錯), 그릇도 선후도착이 뒤엎 구나. 밥을 험셴 허난, 밥상을 먹어 놓안 수군수군, 저거 볍서. 우리 어멍 아니우덴 수군수군 헤여가난,

노일저데귀일이 톨, 흐를날은⁵⁹⁾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사라 배로구나.

“당신 좃앙 덩기명⁶⁰⁾ 몸에 신병 나난 어디 강 문점(問占)이나 헤여줍서.”

“어디 가민 문점 허는 사름 잇이니?”

“저 삼도전 거리에 강 보민 멩텅이 쓴 종이 잇우다.”

걸랑 기영 허렌 허연. 삼도전 거리에 걸영 가는 새에 남선비, 노일저데귀일이 톨 뒷담 졸락 튀영 간 멩텅이⁶¹⁾ 썸 앓앗구나.

“아이고, 문점 허레 왔우다.”

“어떻헤연, 각시 아판 왔구나마썸.”

“아이고, 잘 알암수다.”

“아덜은 일곱성제 나신게마썸.”

“아이고, 맞수다.”

“각시 신병 좋젠 허민 아덜덜 일곱성제 애 내어⁶²⁾ 먹어사 신병 좋으쿠다.”

“아이고, 이것사 무신 말이과?”

그말 대답 아니헤연. 집이 걸언 오논디 노일저데귀일이 톨은 뒷담 졸락허게 튀언 집이오란 남선비 와가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헤가난,

“문점이나 강 헤여 읍데가.”

“문점은 행 와신디 아덜덜 일곱성제 엘 내영 먹어사 좋으켄 헤염서.”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험도 헛우다. 아덜덜 일곱성제 어떻게연 엘 내어 먹습니까. 게민 다른 디⁶³⁾ 강 점 행 읍서.”

어디 강 점 행 읍서. 세 밧디⁶⁴⁾ 강 들으난, 노일저데귀일이톨이 골아노난 다 맞앗 구나. 아덜덜 일곱성제 애 내영 먹어사 좋으켄 허난,

“게거든 흘 수 엇우다. 아덜덜 일곱성제 애 내얼 먹영 나 신병 좋앙 혼 배에 두 개 썸 쌍둥이로 세 배만 나쿠다.”

허난, 걸랑 기영 허렌. 영 허난, 남선빈 은장도 칼 내여 놓앙 슬금슬짝 고노렌 허 난, 동네 청태산이 마고할망 불 담으레⁶⁵⁾ 오랏단

59) 흐를날은: 하룻날은.

60) 덩기명: 다니면서.

61) 멩텅이: 망태.

62) 애 내어: 간을 내어.

63) 다른 디: 다른 곳에.

64) 세 밧디: 세 곳에.

“남선비님아, 남선비님아, 어떻게연 칼 골암시니?”⁶⁶⁾

“아이고, 곧도 말고 이르지도 맙서. 우리 큰부인 날 좃아 덩기단 신병 나난, 어디 강 문점 허난, 아덜덜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어사 신병이 조키엔⁶⁷⁾ 헤영 칼 골암수다.”

아이고, 것사 무신⁶⁸⁾ 말이라. 아덜덜 일곱성제 신디 간, 너네 아방 호첩에 말 들영 느네 일곱성제 애 내젠 칼 골암젠 허난, 이제랑 족은아들이,

“설운 성님네야. 경 울지 말앙 잇입서. 올레에 사십서.”

집이 들어간,

“아버지, 무시거 허젠⁶⁹⁾ 칼 골암수파?”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느네 어멍 날 좃아 덩기명 신병 나난, 어디 강 문점허난 아덜덜 일곱성제 애 내영 먹어사 좋으켄 허난, 홀 수 것이 애 내젠 칼 골암져.”

옛날은 부모님이 죽으렌 허민 죽고, 살렌 허민 살 때난 홀 수 없는 일이고구나만은, “아버지 칼 일곱 번을 대젠 허민 가슴인덜 일곱 번을 아니 아프명 우리 일곱 성제 죽이민 일곱 번 쳐당,⁷⁰⁾ 문곡 파곡 덮으곡⁷¹⁾ 허젠 허민 어떻게연 허쿠과? 경 말앙.⁷²⁾ 그 칼을 날 주민, 성님네 굴미굴산 아야산 짚은 곳디⁷³⁾ 들어강 성님네 엘 내어 오랑 먹영 어머니가 살아나건 날랑 죽이지 말곡, 아니 살아나건 아버지 손으로 혼 번에 간 단허곡 십곡 좋을 거 아니우파.”

“것도 경 허라.”

물 멩텅이 내여 준다. 성님네 돌안 저 산천더레 들어간다.

“어머님아, 어딜 갑데가? 살앗건 혼져 읍서.”

죽엇건 혼정으로라도 우릴 살려 줍셴 허단 보난, 산노리⁷⁴⁾ 일곱이 내려왓시난, 산노리 일곱을 잡셴 허난, 우린 산짐승이난 잡지 말고 우리 조름으로 산툫⁷⁵⁾ 일곱머리 내려왓시난 앞이 건, 씨전중(-傳種) 놓아 두고, 조름에 건 여섯 마리 잡앙 가렌 허난, 걸랑 기영 헉셴 헤연.

노리 풀랭이⁷⁶⁾ 문착 끊어두고, 잠지폐기에⁷⁷⁾ 백지(白紙) 혼장씩 앓아 내언 지전(紙錢), 잠지팩에도 붙여 간다. 이멍거리에도⁷⁸⁾ 붙여간다. 풀다시에도⁷⁹⁾ 붙여간다. 노린 얼룩베기 뉘는 법⁸⁰⁾ 마련허엿습네다. 산노리 일곱 내려왓시난, 산툫 일곱 머리 내려

65) 담으레: 담으러.

66) 골암시니: 갈고 있느냐.

67) 조키엔: 좋을거라고.

68) 무신: 무슨.

69) 무시거 허젠: 무엇을 하려고.

70) 쳐당: 쳐다가.

71) 덮으곡: 덮고.

72) 경 말앙: 그렇게 하지 말고.

73) 짚은 곳디: 짚은 곳에.

74) 산노리: 산노루.

75) 산툫: 멧돼지.

76) 풀랭이: 꼬리.

77) 잠지폐기에: 불기짝.

78) 이멍거리에도: 이마에도.

79) 풀다시에도: 팔뚝에도.

왓시난, 앞이 건 씨전중으로 놓아두고 뒤에 거 요섯 머리 앵 내언 물 멩텅이에 놓아
두고, 궤긴⁸¹⁾ 멩게냥⁸²⁾ 석단불 이랑이랑 피와난, 익어신가 혼점. 설어신가 혼점 끊어
먹단 보난, 일곱머리 다 먹어지엇구나.

해는 열락서산 다 지엇구나.

“성님아, 방위마다 사십서. 살앗건 몸천으로 담아듭서. 죽엇건 삼혼정으로 담아듭서
허걸랑 왓각달각 담아 됴서.”

허난, 걸랑 기영 허렌 해연. 집이 들어 간,

“어머님아, 요걸 먹영 살아납서.”

아이고,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설운 애기덜 약 먹는 디 아니 베린다.”

나가렌 해연.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다 자리 알더레⁸³⁾ 묻어 두고, 하나만⁸⁴⁾ 더 먹
어시민 콩 방울만이 현 거 목 알더레 소로록허게 내려가키엔 허난,

“게민 어머님아. 하나만 더 먹어시민 좋으쿠과?”

“하나만 더 먹어시민 좋으키여.”

“영 험서. 방이나 치와똥⁸⁵⁾ 나가 죽으쿠다. 이부자리나 치왕 나가 죽으쿠다.”

“중병 든 디 이부자리 아니 치웁나.”⁸⁶⁾

“니나⁸⁷⁾ 잡아두영 나가 죽으쿠다.”

“아이고, 설운 애기야. 병든 딴 니도 아니 잡나.”

요년. 저년. 궤썸헌 년. 죽일 년. 잡을 년. 대동강에 목 벨 년이로구나. 이불, 앓안
치와똥, 혼쪽⁸⁸⁾ 손에 세 개씩 여섯 개 심언 지봉상상⁸⁹⁾ 즈추모루⁹⁰⁾ 올라 간,

“요 동네사람들아. 다슴어멍⁹¹⁾ 잇고 다슴애기 잇는 사름 우리 방 정 다십서.⁹²⁾ 설
운 성님네 살앗건 혼저 읍서. 죽엇건 삼혼정으로 담아 됴서.”

허난, 동서 남북으로 왓각달각 담아들어 가난, 남선빈 저 올레에 돌단⁹³⁾ 정살낭
에⁹⁴⁾ 목메연 목 꺾어전 죽엇구나.

노일저데귀일이 뜯은 변소간에 간 쉬운데자 수페머리에⁹⁵⁾ 목 메연 죽엇구나. 어머
님 원수 갚음 허저. 마당드레 끄집어 내언. 머린 돌환⁹⁶⁾ 저 바당으로 데껴부난 지칭

80) 열룩베기 뉘는 법: 열룩배기 되는 법.

81) 궤긴: 고기는.

82) 멩게냥: 청머리덩굴.

83) 알더레: 아래에.

84) 하나만: 하나만.

85) 치와똥: 치워두고.

86) 치웁나: 치운다.

87) 니나: 이나.

88) 혼쪽: 한쪽.

89) 지봉상상: 지붕 위.

90) 즈추모루: 상마루 맨 위 꼭대기.

91) 다슴어멍: 계모.

92) 다십서: 다스리세요.

93) 돌단: 달리다가.

94) 정살낭에: 정낭.

95) 쉬운데자 수페머리: 길고 헝클어진 머리.

으로 면사님으로 마련한다. 눈은 돌환 천리통, 코는 침통, 권 요세 전화걸언 ‘여보세 요.’ 허기 마련한다. 꺾자락은 돌좌단 작박을⁹⁷⁾ 한다. 젓통아린 돌환 가지쟁이⁹⁸⁾ 한다. 손톱 발톱은 돌좌단 저 바당에 데껴부난 쉼금벗 하레비금벗 물금벗⁹⁹⁾ 마련한다. 발은 곰베로¹⁰⁰⁾ 마련한다. 열 손가락은 글쟁이로¹⁰¹⁾ 마련한다. 양다린 돛집¹⁰²⁾ 짓고 디덜팡¹⁰³⁾ 놓기 마련한다. 데가린 두 개 반득이 벌려단 하나는 대수값음 하나는 돛도 고리¹⁰⁴⁾ 마련하고 허단 남은 거 박박, 도고방에에¹⁰⁵⁾ 모사단¹⁰⁶⁾ 산중에랑 곡다귀¹⁰⁷⁾ 몸 해경에랑 모기 몸에 환싱허고, 웅웁 울어가민 이녁냥으로 이녁볼 차기 맞기 마련 허연.

어머님 원수 값음 헤엿구나. 어머님 좃앙 간 보저. 주천강 연훼못디 간 보난, 물은 퍼도 그만이, 아니 퍼도 그만이 주천강 연훼못디 물이 봉봉허엿구나.¹⁰⁸⁾ 비세(悲鳥)굴 이¹⁰⁹⁾ 울엄시난, 광세란¹¹⁰⁾ 양반이 넘어가단,

“느네 무사¹¹¹⁾ 경¹¹²⁾ 울엄디?”

“이 물 소곱에¹¹³⁾ 어머니 신체 잇인디 좃지 못헿 울엄수다.”

“설운 애기덜 나 등더레 타라.”

노리 고기 일곱 점을 마련 헤연. 광허민 혼 점 물리곡, 광허민 혼 점 물리곡 허단 혼 점은 알더레 털어져부난, 물릴 거 엇이난 동무릎에 술¹¹⁴⁾ 돌좌단 맥이난,¹¹⁵⁾ 동무릎에 술은 없는 법 마련허고.

서천꽃밭디서 피 오를 꽃, 술 오를 꽃 오장육부 간담 피부 오를 꽃 조근조근 탄 오란. 죽냥¹¹⁶⁾ 막데기로 봉봉 헌 물에 혼번 두 번 삼세번 두드리난 버짜 싹구나.¹¹⁷⁾ 물도 들엇닥 싹닥 허는 법 마련허고, 돈도 잇엇당도¹¹⁸⁾ 엇고, 엇엇당도 잇는 법 마련허연.

96) 돌환: 도려내어.

97) 작박을: 바가지를.

98) 가지쟁이: 개지뚜껑.

99) 쉼금벗 하레비금벗 물금벗: 딱지조개의 일종.

100) 곰베로: 곰방매로.

101) 글쟁이로: 굽는 도구로.

102) 돛집: 돼지집.

103) 디덜팡: 제주 재래식 변소에서 뒤를 볼 때, 밝고 앉아 일을 볼 수 있게 만든 돌.

104) 돛도고리: 돼지 먹이를 주는 그릇.

105) 도고방에에: 방아에.

106) 모사단: 찢어서.

107) 곡다귀: 각다귀.

108) 봉봉허엿구나: 물이 짹 찼구나.

109) 굴이: 같이.

110) 광세란: 광하게 우는 새라는.

111) 무사: 왜.

112) 경: 그렇게.

113) 소곱에: 속에.

114) 술: 살.

115) 맥이난: 먹이니.

116) 죽냥: 대나무.

117) 버짜 싹구나: 바짜 싹구나.

118) 잇엇당도: 있었다가도.

어머님 뻘¹¹⁹⁾ 솔그랑¹²⁰⁾ 헤여시난 복복 담안 피 오를 꽃 솔 오를 꽃 오장육부 오를
꽃 간담 피부 오를 꽃 다 난. 죽냥 막데기 삼세번 두드리난 와들렉이 살아난,

“봄 잠이라 너미¹²¹⁾ 자 젓저.”

“나 어머님이 적실허구나.”

어머님 누워난 흙은 복복 담안 궤연. 큰성도 혼 고냥,¹²²⁾ 셋성도 혼 고냥, 세 번째
성도 혼 고냥, 네 번째 성님 다섯 번째 성님 요섯 번째, 일곱 번째 툐를 디가¹²³⁾ 엇
이난, 동수굴은 주먹으로 바락허게 가운데 간 툐루난 시리 고냥은 일곱 개 나고,

정월 대보름 날 시리떡¹²⁴⁾ 모듬떡 지어먹기 마련허영, 재수가 좋젠 허민, 징징이 놓
양¹²⁵⁾ 잘 익고, 재수가 굿젠 허민¹²⁶⁾ 서는¹²⁷⁾ 법을 마련허고.

어머님. 집 좃양 걸읍센 허난, 고짜허게¹²⁸⁾ 좃안 왓구나. 어머님 물에 좌정(坐定) 헤
여 나시난¹²⁹⁾ 조왕할망으로¹³⁰⁾ 들어산, 초덕 초허루¹³¹⁾ 초이틀, 이덕 초사흘 삼덕 할
마님 조왕할마님으로 어머님이랑 들어삼서.

“성님들은 어디로 가쿠과?”

“난 동방청대장군(東方靑帝將軍).”

둘째성님 서방백대장군(西方白帝將軍). 세 번째 성님 남방적대장군(南方赤帝將軍).
네 번째 성님 북방흑대장군(北方黑帝將軍). 다섯 번째 중앙황신장군(中央黃神將軍) 들
어산다.¹³²⁾ 상성주 중성주 하성주로 들어산다. 죽은 아들 녹디생인 일문전 들어산다.
어머님은 조왕할망 사고,¹³³⁾ 아바님은 저 올려레 돌단 죽으난 정살지기¹³⁴⁾ 올레지기
마련허고, 노일저데귀일이뜰은 변소에 간 쉬운데자 수페머리 목메언 죽으난, 서각동
토¹³⁵⁾ 불러주고, 변소에 가민 옛날은 광난이증¹³⁶⁾ 불러주영 얻어먹고, 변소에 건 조
왕에 오민 동티가 나는 법. 조왕에 건 변소에 가도 동티가 아니 나는 법 마련허고,
막음 방 튼 방 삼살(三殺) 연살 요섯 번째 돌아가명 웨우로 돌고¹³⁷⁾ 노다¹³⁸⁾ 돌고, 우

119) 뻘: 뼈는.

120) 솔그랑: 뼈만 모여 있는 모습.

121) 너미: 너무.

122) 혼 고냥: 한 구멍.

123) 툐를 디가: 툐을 곳이.

124) 시리떡: 시루떡.

125) 징징이 놓양: 층층이 놓아서.

126) 굿젠 허민: 나쁘고 하면.

127) 서는: 익지 않는.

128) 고짜허게: 곧게.

129) 나시난: 있었으니.

130) 조왕할망으로: 부역신으로.

131) 초허루: 초하루.

132) 들어산다: 신으로 들어선다는 뜻.

133) 사고: 신으로 좌정하고의 뜻.

134) 정살지기: 올레 어귀에 정살을 꿰어 걸치도록 구멍을 파 세워 놓은 주목(柱木)과 정살의 신.

135) 서각동토: 동티. 금기에 의해 손을 대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신의 노
여움을 사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136) 광난이증: 미치는 증세.

137) 웨우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138) 노다: 오른쪽.

로 도는 건 삼살 연살, 좌로 도는 건 막음 방 튼 방 허는 법 마련하였습네다.

이 집안과 오늘 일문전 난수생 신평어 올렸습네다. 들 적에도 문전 날 적에도 문전. 들고 나고 허는 디 일문전 난수생 신을 풀어 드리시난, 집안에 올 금년 만성덕 소원 성취 장원정, 성신이 개괄시경 소원성취 시겨줍서. 일문전 난수생 과광성 신평엇습네다.